Global Market Report

RCEP 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조사개요

1 | 1. 조사배경 및 목적
1 | 2. 조사대상국가 및 내용
1 | 3. 조사결과

Ⅱ. RCEP 개관 및 협상동향

3 | 1. 개요
4 | 2. 추진배경
4 | 3. 의의
8 | 4. 국가별 주요입장
11 | 5. 협상동향

Ⅲ. 제13차 협상 주요내용 및 참여국 동향

14 | 1. 협상개요
14 | 2. 주요내용
15 | 3. 참여국 반응 및 평가
16 | 4. 참여국 동향

Ⅳ. 시사점

30 | 시사점

요 약

□ 조사배경 및 목적

○ RCEP 참여국이 연내 협상타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13차 협상이 '16.6.8-6.18 기간 중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

- 이번 협상은 상반기 마지막 협상으로 연내타결 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의 국가별 정부 및 산업계 반응을 조사하여 향후 협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조사내용

○ 조사 대상국가 : 13개국

○ RCEP 협상 동향과 주요논의사항 및 제13차 협상에 대한 국별 반응

□ 조사결과

○ 협상에 긍정적 평가를 보인 국가는 13개국 중 2개국으로 나머지 11개국은 대부분 평가를 보류하는 등 이번 협상에 대한 참여국 반응 자제

○ 참여국 모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자국 민감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며 작업반 별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인도가 제안한 관세 자유화 방식에 다른 참여국이 반대하면서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미국 대선,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적 요소도 연내 협상타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 시사점

○ 시장개방수준과 무역자유화방식에서 난항을 겪으며, 상반기 마지막 협상까지 분야별 구체적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참여국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별 협상 적극성 변화 등으로 연내 타결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

○ RCEP은 다른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가국 대부분이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할 때까지는 협상 조기 타결이 어려울 수 있음

○ 협상 속행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그룹화하여 이해관계 분야를 대응해 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RCEP 참여국이 연내 협상타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13차 협상이 '16.6.8-6.18 기간 중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
- 이번 협상은 상반기 마지막 협상으로 연내타결 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의 국가별 정부 및 산업계 반응을 조사하여 향후 협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조사내용

□ 조사대상 국가 : 13개국

○ RCEP 참여 16개국 중 무역관 소재 13개국 (브루나이, 라오스 제외)
-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네시아*

□ 조사내용

○ RCEP 협상 동향과 주요 논의사항

○ 제13차 협상에 관한 정부·언론 및 산업계 반응

3. 조사결과

□ 협상에 대한 평가

○ (긍정적 평가) 뉴질랜드, 일본
- 협상 전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평가는 보류
- 조기타결 보다 높은 수준의 타결 강조

○ (부정적 평가) 베트남
- 시장개방 정도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부정적으로 평가
- 다른 무역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타결 강조

○ (공식발표 없는 국가) 중국, 호주, 인도 등

□ 주요 분야별 입장

○ 참여국 모두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민감분야 보호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업)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농축산품 수출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기대, 일본과 필리핀은 시장 개방수준을 경계하는 분위기
- 농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캄보디아도 높은 수준의 개방 기대

○ (서비스)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차등화 주장

○ (지재권) 한국, 일본, 호주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개방 수준 차등화 요구
- 특히 의약품 지재권 보호수준을 두고 한국·일본과 인도·호주가 대립 양상

□ 특기사항

○ 인도와 국제정세변화가 RCEP 조기타결의 열쇠
- 인도가 제안한 선택적 무역자유화 방식을 대부분의 참여국이 반대
-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은 인도의 입장변화가 협상진전의 열쇠라고 밝힘
- 미국 대선, 영국 브렉시트 등 대외적 요인도 RCEP 협상에 영향

○ 인도네시아의 적극성이 낮아졌으며, 호주에서도 RCEP 반대 입장 출현

○ 일본, '소리'도 상표 보호의 대상으로 제안
○ 뉴질랜드, 일부 학계에서 ISDS를 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제기

Ⅱ RCEP 개관 및 협상동향

1. 개요

○ (명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참여국) 16개국
- 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 RCEP 참여 16개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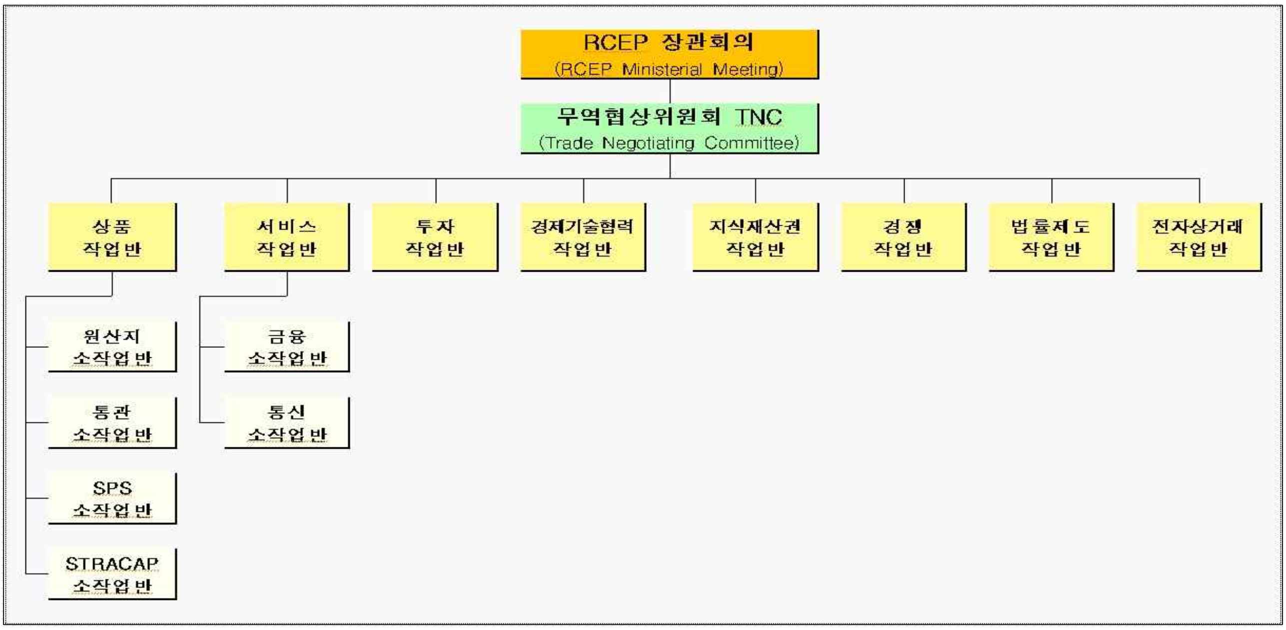
대한민국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인도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ASEAN 10개국

○ (성격) 역내 경제협력강화 및 교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 (구성) RCEP 경제장관회의와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중심으로 8개 작업반과 6개 소작업반으로 구성*

* 4개 작업반으로 출범하였으나, 협상을 거치며 분야별 작업반이 분화됨.



2. 추진배경

○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아시아권에서도 지역무역협정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됨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추진 등

○ 특히 TPP를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ASEAN을 중심으로 EAFTA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와 CEPEA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을 논의한 끝에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담에서 RCEP 작업계획 제시

* ASEAN + 3(한・중・일), 중국의 제안으로 2004년부터 논의
** ASEAN +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주도로 2007년부터 논의

【 RCEP 추진연혁 】

시기	회의명	내용
2000년 초		•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 및 지역무역협정 논의 본격화
’04년		• EAFTA 연구 시작
’07년		• CEPAEA 연구 시작
’09.8월	ASEAN+6 경제장관회담	• EAFTA, CEPEA 연구결과 보고
’11.11월	ASEAN 정상회담	• RCEP 작업계획 제시 - EAFTA, CEPEA 논의 종료
’12.8월	ASEAN+6 경제장관회의	• RCEP 협상지침 및 협상개시선언 일정 확정* * ’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 선언

3. 의의

가. 세계경제에서 RCEP의 의의

○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블록

- 2014년 기준, RCEP 참여국의 GDP 총합은 22조7천억 달러 규모로 28조1천억 달러의 TPP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블록

【 세계 주요경제블록의 GDP 규모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경제블록	GDP	비중*
1	TPP	28,100,000	36.0%
2	RCEP	22,679,487	29.1%
3	EU	15,510,000	23.7%

자료원 : UNCTAD, World Bank (기준연도 : 2014년)
* 2014년 전 세계 GDP : 77,690,607,000,000 달러 (World Bank, 195개국 기준)

○ 세계인구의 47.6%, 세계 교역액의 34.2%를 차지하는 초 거대시장

- '14년 기준, RCEP 참여국의 총인구는 약 35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어 최대생산지역 및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14년 기준, RCEP 참여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총액은 13조 달러 규모로 38조 2천억 달러 규모인 전 세계 교역액의 1/3을 차지

【 RCEP 회원국의 주요 경제통계 】

(단위 : 천 명. 백만 달러)

국가	인구	GDP	교역액
대한민국	50,074	1,410,383	1,326,068
중국	1,369,436	10,430,590	4,916,566
일본	126,795	4,602,419	1,857,788
베트남	92,423	186,205	325,206
호주	23,622	1,471,439	595,941
싱가포르	5,507	307,872	1,082,272
인도네시아	254,455	888,538	406,723
말레이시아	29,902	326,933	530,078
인도	1,295,292	2,054,941	1,070,353
필리핀	99,139	284,582	177,222
태국	67,726	404,824	563,850
뉴질랜드	4,495	198,652	111,726
브루나이	417	17,104	16,852
미얀마	53,437	66,478	34,071
캄보디아	15,328	16,778	30,053
라오스	6,689	11,749	8,188
총계	3,494,737 (47.6%)	22,679,487 (29.1%)	13,052,957 (34.2%)

자료원 : UNCTAD, World Bank (기준연도 : 2014년)

○ 역내 원활한 국별 분업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참여국 간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원자재 수출중심국가, 노동집약형 제조업중심국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중심국가가 모두 포진되어 있어 역내 활발한 GVC (Global Value Chain)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나. 한국경제에서 RCEP의 의의

○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48.2% 차지 (교역액 기준)
- '15년 기준, 한국과 RCEP 참여국간 전체 교역액은 4천6백억 달러 규모로 한국 전체 교역액 9천6백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
- 교역액 기준 교역순위 10위 이내 국가 중 5개 국가, 20위 이내 국가 중 10개 국가가 RCEP에 참여*
  * 중국(1), 일본(3), 베트남(4), 호주(8), 싱가포르(10), 인도네시아(12), 말레이시아(13), 인도(14), 필리핀(19), 태국(20)

【 RCEP 회원국과 한국의 교역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교역액	교역비중
1	중국	227,374	23.6%
3	일본	71,431	7.4%
4	베트남	37,576	3.9%
8	호주	27,269	2.8%
10	싱가포르	22,953	2.4%
12	인도네시아	16,722	1.7%
13	말레이시아	16,344	1.7%
14	인도	16,271	1.7%
19	필리핀	11,570	1.2%
20	태국	11,216	1.2%
42	뉴질랜드	2,488	0.3%
64	브루나이	1,239	0.1%
65	미얀마	1,166	0.1%
70	캄보디아	870	0.1%
*	라오스*	-	-
총 계		464,489	48.2%

자료원 : KITA (기준연도 : 2015년)
* 對라오스 교역 통계자료 미비

○ 주요 교역국과 안정적인 교역기반구축 및 일본과 최초로 무역협정 체결
- RCEP이 타결되면 일본과 최초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의의가 있으며, 한·중·일FTA 및 한·일FTA 협상의 디딤돌로 작용할 전망
- TPP 참여 12개국 중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 멕시코 2개국으로, RCEP 타결 시 한국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TPP 참여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
- RCEP 타결 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게 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

○ 旣체결한 무역협정 간 '스파게티 볼' 현상 발생억제
- 일본을 제외한 모든 참여국이 한국과 양자/다자 FTA를 체결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적용으로 각 협정별 규정의 충돌 최소화

○ 역내 GVC를 활용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

【 TPP · RCEP 참여국과 한국의 무역협정 현황 】

지역	국가	TPP	RCEP	기타협정	비고
북중미	미국	O	X	O	
	캐나다	O	X	O	
	멕시코	O	X	X	한국과 旣체결협정 없음
남미	칠레	O	X	O	
	페루	O	X	O	
대양주	호주	O	O	O	TPP · RCEP 동시참여
	뉴질랜드	O	O	O	
동북아	중국	X	O	O	
	일본	O	O	X	RCEP 타결 시 한국과 첫 무역협정
동남아	태국	X	O	O	
	싱가포르	O	O	O	TPP · RCEP 동시참여
	베트남	O	O	O	
	말레이시아	O	O	O	
	브루나이	O	O	O	
	인도네시아	X	O	O	
	필리핀	X	O	O	
	미얀마	X	O	O	
	캄보디아	X	O	O	
	라오스	X	O	O	

4. 국가별 주요입장 (조사대상 13개국)*

* 브루나이, 라오스 제외

국가	주요입장
중 국	• 기본입장 - 경제안보 및 역내 주도권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성이 높음 - TPP 타결 이후 RCEP 조기타결 필요성 언급 • RCEP의 의의 - RCEP 참여국이 중국 대외무역의 약 30% 차지 -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항하여 역내 영향력 유지 및 경제안보 확보 • 주요쟁점 - 농업분야 개방을 적극 추진 중으로 한국, 일본과 의견 상충 - 제조업,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분야의 개방에는 차등화를 주장
일 본	• 기본입장 - TPP와 RCEP의 2대 광역 FTA 참여를 통해 FTAAP 구축 목적 - TPP 타결 이후 상대적으로 협상 속도에 느긋한 입장 • RCEP의 의의 - 중국, 동남아, 인도를 활용하여 일본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구축 - ASEAN과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 주요쟁점 - 서비스・투자・지재권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 - 민감품목인 농산품 보호노력
인 도	• 기본입장 - TPP대응 및 역내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조속한 타결 지지 • RCEP의 의의 - 무역협정 미체결국인 일본, 뉴질랜드 등과 협정체결 효과 - ASEAN과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 주요쟁점 - 서비스・투자・지재권 분야에서 차등화된 개방요구 - 무역자유화 방식에서 그룹별로 다른 관세 인하율 제시
호 주	• 기본입장 - TPP와 RCEP 양 메가 FTA 동시참여를 통한 이익 극대화 • RCEP의 의의 - 12대 교역국 중 TPP에 참여하지 않은 5개 국가와의 메가 FTA체결 - 서비스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RCEP 참여국으로의 시장확대 기회 • 주요쟁점 - 서비스・투자・지재권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약품 지재권의 보호수준은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국가	주요입장
뉴질랜드	• 기본입장 - 수출시장 확대와 TPP, RCEP 동시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RCEP의 의의 - 전체 수출의 60%를 RCEP 참여국이 차지 (TPP : 20%) - 인도, 일본과 무역협정체결 효과 • 주요쟁점 - 낙농제품에서 무역협정 미체결국인 인도, 일본의 수출장벽 제거 기대
싱가포르	• 기본입장 - TPP와 병행추진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RCEP의 의의 - 무역시장 확대를 통한 중소국가의 한계 극복 - 주력 산업인 서비스・투자 부문 역내 교역 활성화 • 주요쟁점 - 투자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 및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추진
베 트 남	• 기본입장 - 다자간 무역 촉진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및 투자지원 확대 • RCEP의 의의 - TPP와 RCEP 동시 참여로 섬유산업 기반 확대 - 역내 글로벌 체인 편입을 통한 자국기업 발전 기회 • 주요쟁점 - 원산지 규정 확대 희망 -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아 지적재산권은 낮은 수준의 보호를 희망
인 도 네 시 아	• 기본입장 - RCEP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시장 개방에는 신중한 입장이며, 국민적 인지도도 낮은 편 • RCEP의 의의 - RCEP 체결 시 경제성장률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주요쟁점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낮은 수준의 시장 개방 요구
태 국	• 기본입장 - 원자재의 저렴한 수입을 통한 태국기업의 무역 공급망 확장 기대 • RCEP의 의의 - 주요 수출시장의 확보 • 주요쟁점 - 상품・서비스 및 투자부문에 중점

국가	주요입장
말레이시아	• 기본입장 - RCEP을 활용한 주요 교역국과의 연계 강화 추진 • RCEP의 의의 - RCEP 참여국과의 교역이 전체무역의 60% 차지 - 무역촉진 과 말레이시아 기업의 해외사업 확장 기회로 활용 기대 • 주요쟁점 - 중국 등과의 인건비 격차로 인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민감 - 농수산물 등 1차 산업분야 보호 노력
필리핀	• 기본입장 - RCEP을 활용한 주요 교역국과의 연계 강화 추진 • RCEP의 의의 -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확대 기회 • 주요쟁점 - 상품분야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관세 수준 재조정 요구
캄보디아	• 기본입장 - 동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RCEP 조기타결 지지 • RCEP의 의의 - 자체 생산이 거의 없어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대 • 주요쟁점 - 수입규제 등 무역장벽이 거의 없어 관련 쟁점이 적음.
미얀마	• 기본입장 - RCEP을 활용한 주요 교역국과의 연계 강화 추진 • RCEP의 의의 - 경제활성화 및 국제경제체제 편입 가속화 • 주요쟁점 - 특이 쟁점 없음

5. 협상동향

가. 협상시한

○ 2016년 내 타결 목표
  - 최초 협상타결 목표시한은 2015년이었으나 국가별 주요의제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협상 지연
  - ‘15.10월 TPP가 타결을 계기로 참여국 간 협상 조기 타결 분위기가 형성되어 2015년 ASEAN 정상회의에서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2016년 내 타결을 새로운 협상 시한으로 설정

나. 협상경과

○ 2013년 제1차 협상을(5.9-5.13,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베가완) 시작한 이래로 2016년 현재 제13차 협상까지 진행(6.10-6.18, 뉴질랜드 오클랜드)

【 RCEP 협상경과 및 관련이슈 】

내용	개최기간	개최지
제1차 협상	’13.5.9-5.13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제1차 경제장관회의	’13.8.19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제2차 협상	’13.9.23-9.27	호주 브리즈번
제3차 협상	’14.1.20-1.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4차 협상	’14.3.31-4.4	중국 난닝
제5차 협상	’14.6.23-6.27	싱가포르
제2차 경제장관회의	’14.8.27	미얀마 네피도
제6차 협상	’14.12.1-12.5	인도 그레이터노이다
제7차 협상	’15.2.9-2.13	태국 방콕
제8차 협상	’6.8-6.13	일본 교토
제9차 협상	’15.8.3-8.7	미얀마 네피도
제3차 경제장관회의	’15.8.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TPP 타결	’15.10.5	-
제10차 협상	’15.10.12-10.16	대한민국 부산
ASEAN 정상회의	’15.11.21-11.2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EC 출범	’15.12.31	
제11차 협상	’16.2.15-5.19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제12차 협상	’16.4.22-4.29	호주 퍼쓰
제13차 협상	’16.6.10-6.18	뉴질랜드 오클랜드

다. 협상별 주요내용

협상	주요내용
제1차 협상	• 참여국 간 협상 매커니즘 합의 • 무역협상위원회(TNC) 설립 및 운영규칙 합의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3개 작업반 설립 및 회의 개최 • 분야별 이슈 정리 : 개별국가가 준비한 Concept Paper 중심 - (한국) 분쟁해결, (일본) 지재권 및 경쟁, (ASEAN) 협력
제1차 경제장관회의	• 2015년 협상타결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 최종협상(제10차 협상) 개최시기 및 장소 합의 ('15.9월 대한민국)
제2차 협상	• 상품/서비스/투자/ 작업반 별 논의 진행 • 기타 분야에 대한 추가 작업반 구성 문제 논의
제3차 협상	• (상품)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 -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작업반 신설 및 논의 진행 •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 포함 요소 논의 • 규범 협력분야인 경쟁,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경제기술협력 등 4개 분야 작업반 신설 합의 (한국, 경쟁분야 관련 발표)
제4차 협상	• (상품) 협상방식, 협상목표 및 비관세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중점 논의 - (한국) 관세 감축률 등 모델리티 제안 •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 포함 요소 논의 • (경쟁·지재권·경제협력) 최초 논의 시작, 협상범위 및 계획 등 •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의 협상 포함 여부 논의 - (한국)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분야 제안서 발표
제5차 협상	• 특이 동향 없음
제2차 경제장관회의	•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를 협상 대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
제6차 협상	• 제2차 경제장관회의 지침을 기초로 협상 진행 • (상품) 1차 양허안에 포함될 주요요소 논의 -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등 •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논의

협상	주요내용
제7차 협상	• (상품) 관세철폐 수준, 관세철폐기간, 유관세품목 포함여부 논의 및 상품 통합협정문 작성 시작 • (상품) 원산지, 통관, SPS, Stracap 등 4개 소작업반 설치 •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및 협정 포함요소 논의 지속 * 네거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 (규범・협력) 경쟁, 지식재산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등 4개 작업반 설치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협정문 내 포함방법 논의* * 제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 • 정부조달, 노동분야의 RCEP 포함 여부 관련 논의
제8차 협상	•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및 협정문 포함 요소 논의 • (서비스・투자)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2개 소작업반 설치
제9차 협상	• 한국 대표단이 6개 동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연맹 (ATP : ASEAN FTA Partner)*의 연맹 조정자 역할 수행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제3차 경제장관회의	• 특이 동향 없음
제10차 협상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14개 분과회의 동시 개최 • AEC 출범 앞두고, AEC 세미나도 동시에 개최 (10.14) • (특기사항) - 제10차 협상을 최종협상으로 목표했으나 (제1차 경제장관회의) 협상 지연 등으로 협상 타결이 미뤄짐 - 협상 직전 TPP 타결 (10.5)
ASEAN 정상회의	•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 - 2016년 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실질적 협상 및 협정문 협상 심화
제11차 협상	• '16년 내 타결을 목표로 한 뒤 첫 공식협상 •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 분과 협상만 개최 - 1차 상품 양허수준 등 협상기본지침(모델리티)만 합의된 상태 • (특기사항) -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중국과 인도가 높은 수준의 개방 반대 - 호주・일본 등은 TPP 타결 이후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
제12차 협상	• 의약품 지재권 강화 조항 작성 (한국, 일본 발의)

Ⅲ 제13차 협상 주요내용 및 참여국 동향

1. 협상개요

○ 기간 및 장소 : '16.6.10-6.18, 뉴질랜드 오클랜드

○ 참여국가 : RCEP 참여 16개국

○ 협상내용 : 총 14개 분야
- 상품, 서비스, 투자, 시장접근,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등 14개 분야
- 하반기 공식협상 일정 협의
- 제4차 경제장관회의 의제 결정

○ 의의 :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진행된 상반기 마지막 협상

2. 주요내용

○ **투자분야 일부 협상진전, 상품·서비스 등 기타분야 협상지속**
-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에 합의
- (상품) 상품 양허수준과 관세철폐 방식에서 국가 간 이견 대립
- (서비스) ASEAN 회원국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 개방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개방수준 합의에 실패
- (기타) 정부조달, 원산지규정, 경쟁, 전자상거래, 노동분야도 협상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무역편의화' 챕터 구성도 논의

○ **인도가 제시한 선택적 무역자유화 방식에 대해 이견대립**
- 인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15개 회원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관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자유화 방안 제시*

  * Three tier approach to tariff reduction : 80%철폐(ASEAN 국가), 65%철폐(한국, 일본), 45%철폐(호주, 뉴질랜드, 중국)
- 그러나 다른 참여국들은 다른 무역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동 제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

○ 의약품 지재권 보호수준을 두고 인도와 호주 한 목소리
- 제12차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은 높은 수준의 의약품 지재권 보호를 주장하며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 인도와 호주 보건단체 및 관련업계는 자국 산업보호와 의약품의 저렴한 보급 필요성을 내세우며 동 조항에 반대의견을 제시

3. 참여국 반응 및 평가

○ 참여국 정부, 협상관련 입장발표에 소극적
- 조사대상 13개국 중 협상종료 후 정부 및 관계자 반응보도가 있었던 국가는 일본,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으로 이전협상 대비 참여국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이 현저히 적었음
- 정부의 소극적 입장발표 및 정보공개로 각국 산업계도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음

○ 협상전반에 대한 참여국의 평가도 미온적
- 상반기 마지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협상진전 및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부재
- 개최국인 뉴질랜드만 이번 협상이 RCEP의 연내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으나 조기타결보다는 높은 수준의 타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참여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
- 베트남 역시 시장개방 수준 합의에 실패했음을 밝히며 참여국 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 올해 RCEP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참여국간 이견대립으로 협상속도가 늦어지면서 연내 타결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남
- 미국 대선 후보들의 TPP 재검토 입장 표명과 영국의 브렉시트 가시화로 TPP 발효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RCEP 조기타결 동력도 저하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참여국 중에는 국가 간 무역협정을 旣체결한 국가도 있으나 정

치, 경제, 안보현안이 얽힌 국가들도 있어 조기타결에 대한 국가별 적극성의 차이가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4. 참여국 동향

【 요 약 】

■ 협상에 대한 평가

▫ (긍정적 평가) 뉴질랜드, 일본
- 협상 전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평가는 보류
- 조기타결 보다 높은 수준의 타결 강조

▫ (부정적 평가) 베트남
- 시장개방 정도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을 부정적으로 평가
- 다른 무역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타결 강조

▫ (공식발표 없는 국가) 중국, 호주, 인도 등

■ 주요 분야별 입장

▫ 참여국 모두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민감분야 보호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업)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농축산품 수출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기대, 일본과 필리핀은 시장 개방수준을 경계하는 분위기
- 농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캄보디아도 높은 수준의 개방 기대

▫ (서비스)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차등화 주장

▫ (지재권) 한국, 일본, 호주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개방 수준 차등화 요구
- 특히 의약품 지재권 보호수준을 두고 한국·일본과 인도·호주가 대립 양상

■ 특기사항

▫ 인도와 국제정세변화가 RCEP 조기타결의 열쇠
- 인도가 제안한 선택적 무역자유화 방식을 대부분의 참여국이 반대
-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은 인도의 입장변화가 협상진전의 열쇠라고 밝힘
- 미국 대선, 영국 브렉시트 등 대외적 요인도 RCEP 협상에 영향

▫ 인도네시아의 적극성이 낮아졌으며, 호주에서도 RCEP 반대 입장 출현

▫ 일본, ‘소리’도 상표 보호의 대상으로 제안

▫ 뉴질랜드, 일부 학계에서 ISDS를 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제기

가 중 국

【 요 약 】

- 제13차 협상에 대한 공식반응 없음
  - TPP 타결 이후 중국은 RCEP 조기 타결 입장 견지
- 중국 정부는 RCEP 연내 타결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국제정세 변화가 추진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제기

□ 정부 및 언론동향

○ 협상개최 보도 외 정부 공식발표 없음

- 제12차 협상에서는 협상 종료 후 상무부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는 평가를 내린 바 있으나,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나 분석을 공표하지 않음

○ TPP 타결 이후, 중국 정부는 RCEP 연내 타결 입장을 견지

- '16.2월 제11차 협상에서 중국은 연내 타결을 강조
- '16.3월 양회와 보아오(博鼇)포럼에서도 리커창 총리와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은 RCEP 조기타결을 위해 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음을 밝힌 바 있음

□ 산업계 동향

○ 제13차 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 없음

□ 특기사항

○ 최근 국제정세 변화 및 관련국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중국의 RCEP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제기

- 美 대선후보 트럼프와 힐러리 모두 TPP를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
- 세계 경기침체와 브렉시트(Brexit) 파장으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TPP 발효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

○ RCEP이 타결되더라도 TPP가 발효되면 일부 산업 타격 예상

- TPP 발효 시 미국시장에서 베트남 방직품과 의류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전자·기계 제품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내 방직공장의 이전이 예상됨.

나 일 본

【 요 약 】

- 각 작업반 별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
  - 협상 전반 및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평가는 없었음.
- '소리'를 상표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 정부 및 언론동향

○ 외무성, 원산지 규정 개별 작업반 협의 등 각 작업반 별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밝히며 제13차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TPP와 RCEP이 병존할 경우, 서로 다른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통합면에서는 RCEP 보다 TPP가 더 높은 구심점을 갖는다고 평가

* 일본경제신문, 마아니치신문 등

□ 산업계 동향

○ 일본 농업계는 농업분야 협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농산품의 보호정도가 RCEP에서도 일본의 중요 쟁점임을 시사

* 일본농업신문, 농업분야 개별 품목 논의 여부 모니터링

□ 특기사항

○ '소리'도 상표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 RCEP 협상에서는 '상표의 보호'를 모든 참가국에 의무화할 예정
- 일본은 소리 상표 인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15.4월), TPP에서도 소리의 상표 등록을 의무화하여 RCEP에서도 소리 상표의 보호가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 인 도

【 요 약 】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의 공식반응은 없음
- 인도의 선택적 무역자유화 방안을 다른 참여국들이 거부하면서 협상지연
-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낮은 보호수준을 요구

□ 정부 및 언론동향

○ 제13차 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으나, 그동안 인도정부는 RCEP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 왔음.

- TPP 타결 이후 협상 속행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외교부는 제9차 협상 이후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 인도는 역내 GVC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 구축으로 참여국 간 현실적인 포괄적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각 분야별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여 협상 중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

○ 인도는 선택적 무역자유화방안을 제시했으나 다른 참여국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협상 지연 (The Hindub Businessline)

- 중국이 ASEAN 수준의 개방을 제안하였으나 인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15개 회원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관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자유화 방안 제시*

  * Three tier approach to tariff reduction : 80%철폐(ASEAN 국가), 65%철폐(한국, 일본), 45%철폐(호주, 뉴질랜드, 중국)

☐ 산업계 동향

○ 제약업계 및 보건단체, 의약품 지재권 보호수준 낮출 것을 요구

- 현재 협상 중인 RCEP 협정문에는 의약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제12차 RCEP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의 제안으로 동 조항 신설

- 복제약을 주로 생산하는 인도 제약업계는 의약품 지재권 보호가 강화될 경우, 단가상승 등으로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국경없는 의사회 및 인도 보건단체 역시 의약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조항을 인도 국민에 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의약품의 저렴한 보급을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특기사항

○ 인도의 관세 자유화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학계는 인도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함.

라 호 주

【 요 약 】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공식반응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긍정적 입장 견지
- 의약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 조항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
- 호주 농업계는 RCEP 협정 환영 및 높은 수준의 개방 기대

☐ 정부 및 언론동향

○ 제13차 협상에 대한 공식적 반응은 없었으나, 호주정부는 RCEP을 활용한 상품·서비스·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옴

- RCEP 참여국과의 무역이 전체 교역의 약 60%를 차지

- 호주 GDP의 8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RCEP 참여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서비스 수출의 46.9% 차지
- 호주 내 해외투자의 15.2%를 RCEP 참여국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해외투자 중 17.2%가 RCEP 참여국으로 투자분야에서도 참여국의 영향력이 큼

□ 산업계 동향

○ 보건단체, 의약품 지재권 보호 강화에 반발
- 한국과 일본이 제안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강화조항이 의료비용을 높일 소지가 있다며 관련 단체들이 해당 조항에 우려 표명*
  * 보건단체 Medicine Sans Frontier 보도자료
- 동 조항이 신설된 지난 제12차 협상 직후에도 호주 공공의료협회는 저렴한 의약품 공급의 필요성을 제창하며 반대여론 주도

○ 농업단체, RCEP 협정 환영 입장 표명
- 호주 곡물의 65%가 RCEP 참여국으로 수출
- 호주 곡물생산자협회는 RCEP을 통해 곡물 수출시장 확대 및 통일된 곡물 품질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호주 곡물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
  * 제12차 협상 직후 호주곡물생산자협회 보도자료 발표

□ 특기사항

○ 호주 내 RCEP 반대여론 출현
- 호주 상원의원 무소속 닉 제노폰(Nick Xenophone), 자유무역축소를 촉구하며 RCEP에 반대하는 입장 공표
- 노동당 의원 페니 웡(Penny Wong), 旣체결 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가 주권침해소지가 있음을 주장

마 뉴질랜드

【 요 약 】

- RCEP의 연내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인도와의 협상경과가 RCEP 타결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출산업인 낙농업계는 RCEP의 신속한 타결을 지지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제기

□ 정부 및 언론동향

○ 제13차 협상이 RCEP의 연내타결에 중요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상품관세 및 원산지 분야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밝히며, 뉴질랜드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통상장관

- 뉴질랜드는 빠른 협상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조기타결보다는 높은 수준의 타결이 필요함을 강조*

*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통상장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은 체결하지 않을 것.” (6.12 Stuff紙)

○ 뉴질랜드와 인도의 협상이 성공적 RCEP 타결의 관건

- RCEP을 정체된 뉴질랜드-인도 FTA협상* 타개수단으로 인식

* ’10년 협상개시 이후 협상 진전 없음

□ 산업계 동향

○ International Business Forum, 인도와의 무역협상 정체로 RCEP의 연내 타결 가능성 희박할 것으로 판단

- 인도는 참여국들과 다른 상품관세 철폐방식을 제시하였으나* 참여국들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상품관세철폐를 국가별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관세 철폐율을 적용하는 Three Tier system 제안 : 80%철폐(ASEAN 국가), 65%철폐(한국, 일본), 45%철폐(호주, 뉴질랜드, 중국)

○ 뉴질랜드 낙농협회는 RCEP 신속한 타결지지
- RCEP 참여국은 뉴질랜드 낙농업의 주요 수출국가로 특히 기존에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인도 및 일본시장의 진출확대가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

□ 특기사항

○ 일부 학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ISDS :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RCEP 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 RCEP에 반대하는 다국적 기업이 뉴질랜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오클랜드 대학교 법학교수 제인 켈시 (Jane Kelsey)

바 싱가포르

【 요 약 】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식반응 없음
- 모든 참여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특이 쟁점 없음

□ 정부 및 산업계 동향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발표 및 관계자 발언은 없음
- 싱가포르 비즈니스 협회(SBF)역시 정부방침을 지지하며, RCEP과 관련하여 특별한 입장이 없음을 밝힘
- 싱가포르 시장은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모든 RCEP 참여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관련 특이쟁점이 없음

사 베트남

【 요 약 】

- 시장개방 정도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
- 양허규모와 참여국의 조속한 합의 필요성 강조
- 섬유·의류업계 최대 수혜 업종으로 전망

□ 정부 및 언론동향

○ 베트남은 RCEP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제13차 협상에서는 시장개방 정도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

- 상품 양허수준 및 시점, 원산지 규정, 투자유치 분야에 중점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의류, 석유·가스, 가죽, 신발, 자동차, 농산물의 관세양허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양허규모와 수준에 대한 참여국의 조속한 합의가 중요하며, 다른 무역협정보다 개방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힘.

□ 산업계 동향

○ 섬유·의류업계 최대 수혜 전망

- 베트남은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섬유·의류 업계는 원자재 공급처인 중국과 최대 수출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RCEP의 조속한 타결을 기대
- TPP는 원자재 공급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RCEP은 원자재 공급처와 주요 수출시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

○ 베트남 상공회의소, 자국기업의 낮은 경쟁력은 위기요소로 진단

- RCEP 타결 시 내수시장의 확대개방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
- 중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한 제품의 역내 수출확대가 기대되나 농

산물, 섬유・의류 부문에서 호주, 중국과의 경쟁도 불가피
- 현재 베트남 기업의 약 95%는 중소기업으로 FTA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 수는 많지 않아 특정 산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베트남 국내기업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

□ 특기사항

○ 정부 및 기업의 혁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베트남은 RCEP을 자국기업들이 글로벌밸류체인으로 편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 RCEP이 기존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넓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고 있어 정부 및 기업의 혁신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 학계, 통상규범 정립 측면에서 RCEP을 TPP보다 높이 평가
- ASEAN 시장통합과 교역활성화를 위해서 통일된 규범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개국만 참여하는 TPP보다 모든 ASEAN 국가가 참여하는 RCEP이 역내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아 인도네시아

【 요 약 】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식반응 없음
- 산업계는 RCEP보다 AEC 출범에 따른 대응에 집중하는 분위기

□ 정부 및 언론동향

○ 제12차 협상부터 RCEP 협상관련 정부의 별도 언론발표 없음.
- 인도네시아는 RCEP이 AEC(아세안경제공동체)를 뒷받침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나, RCEP은 중국, 일본 등으로 협상 주도권이 넘어가고 지속적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관심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 자국 산업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의 추가개방에 신중한 입장

- 최근 심각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내부 경제구조 개선을 통한 경기회복에 주력하고 있어 개방 보다 자국 산업보호에 중점

□ 산업계 동향

○ 산업계는 RCEP보다 AEC 출범 관련 국내산업 피해에 더 집중

- AEC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산업부문의 30%만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내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RCEP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

자 필리핀

【 요 약 】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식반응 없음.
- 제12차 협상 참여 시 자국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관세 수준 재조정
- RCEP을 통한 자국 주력품목 수출확대 기대

□ 정부 및 언론동향

○ 민감품목 보호가 필리핀의 주요 관심사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필리핀 산업통상부는 제12차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양허관세 수준을 재조정 중임을 밝혀 자국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쌀, 설탕, 옥수수,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커피, 망고 등

○ RCEP 타결을 통한 자국 주력산업 수출확대 기대

- 참치캔, 생파인애플, 합성섬유제품, 망고, 사탕수수, 코코넛, 코코넛오일, 바나나 등 협정타결 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관련 품목의 수출확대 추진 중

차 태국

【 요 약 】

- 제13차 협상에 대한 산업계 및 정부 반응은 없었으나 언론은 기존 논의사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
- 태국연구개발원은 관세분야 협상이 순조롭다고 평가하며, 서비스·투자 분야의 진척도는 낮다고 평가

□ 정부 및 언론동향

○ 협상에 대한 직접 평가 없이 RCEP의 중요성과 연내 타결 필요성만 강조
- 태국 교역협상국 부국장 로나롱 푼피팟 (Ronnarong Poonpipat), RCEP 연내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9월에 열릴 제14차 회담에서 협상 초안이 의결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 경제부총리 솜킷 자투씨피탁씨(Dr. Somkid Jatusripitak)도 RCEP 참여국이 중요시장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태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태국 언론, 旣논의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도
- 태국 일간지 The Nation은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위생기준, 기술장벽 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산업계 동향

○ 이번 협상에 대한 특이 반응은 없었으며, '15.11월 태국이 TPP와 RCEP에 모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 태국선적협회는 인구와 교역량을 고려했을 때 RCEP이 TPP보다 성장잠재력이 더 클 것이라고 밝힘

□ 특기사항

○ 태국연구개발원(TDRI)은 관세분야 협상은 순조로우나 서비스·투

자 부문 자유화의 진척도는 낮다고 평가하며, RCEP 타결에 대비하여 국내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협상타결 시 기계, 전자, 플라스틱, 고무류의 수출 증가와 전자, 금속류 수입 증가를 예상하며, 상품 다양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 RCEP이 TPP에 비하여 정부조달, 국가 간 법규, 국영기업 등에 대한 논의가 제한 적이어서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태국이 RCEP 협상보다 국내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힘

카 캄보디아

【 요 약 】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식반응은 없음
- RCEP 및 무역협정에 개방적 입장

□ 정부 및 언론동향

○ 동아시아 지역 발전을 위한 RCEP 조기 타결 희망

- 제13차 협상에 대한 정부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1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캄보디아 총리는 RCEP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
- 캄보디아 공공교통부 장관(전 상무부 장관)도 아시아 미래 컨퍼런스('16.5.30)에서 RCEP 타결이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과 캄보디아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목표라고 밝힘

□ 산업계 동향

○ 전반적으로 RCEP에 긍정적인 반응

- Cambod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대표는 RCEP 협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무역협정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밝힘

□ 특기사항

○ 수출 촉진에 주력하고 있어 무역협정에 대한 거부감 없음.
- 캄보디아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적어 자국 산업보호 보다 수출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무역협정에 개방적인 입장
- 공산품과 농산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RCEP 타결 시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
- 그러나 무역협정에 대한 기업 및 국민의 인지도는 높지 않음

Ⅳ 시사점

□ 시장개방 수준 합의도출 난항

○ 참여국 모두 RCEP이 다른 무역협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국가별로 보호하려는 분야에 따라 개방수준 입장 차이가 뚜렷하여 합의 도출에 어려움 예상

- (농축산품) 농축산품 주요 수출국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등은 낮은 수준을 주장

  * 농산품의 대표적 수입국인 캄보디아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지

- (서비스) 서비스 산업 수출시장 확대를 노리는 호주와 일본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개방 차등화를 주장

- (지재권)* 한국, 일본은 지재권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은 낮은 수준의 개방 주장

  * 호주는 지재권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입장이나 의약품 지재권 보호에 대해서는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

○ 참여국간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양허관세 수준조정 협상 진행 중

- 제13차 협상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제12차 협상 종료 후 일부 국가가 상품 양허관세 재조정 협상 중임을 언급

-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가 미온적이고 특히 관세분야 협상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무역자유화 방식도 걸림돌로 부상

○ 인도의 선택적 무역자유화 방식 제안에 다른 참여국들이 반대하면서 협상 조기 타결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

- RCEP이 참여국 간 동일한 수준의 높은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과 참여국들이 旣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 수준을 감안할 때 인도의 제안은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외신보도에 따르면 협상 중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가 인도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동 제안은 참여국이 타결한 다른 무역협정과도 다른 관세철폐방식이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참여국의 적극성 변화와 대외요인도 협상 진척에 영향

○ TPP 타결 이후 모든 참여국이 RCEP의 2016년 내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국가별 적극성 변화가 관찰됨
- 인도네시아는 초기에 대표적인 RCEP 주도 국가 중 하나였으나 최근의 경기침체, AEC 출범, 무역협정 반대여론의 강세 등으로 자국 산업보호, 국내 경제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는 RCEP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임
- TPP와 RCEP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TPP가 타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협상 속도에 여유로운 모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 반면 향후 TPP에 참여하려는 국가들은 RCEP의 조기타결이 TPP 참여 시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성이 높음

○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도 RCEP 참여국에 영향
- 美대선 후보들의 TPP 재검토 입장천명과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TPP 발효시기도 늦춰질 전망
- 이에 따라 TPP 대항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RCEP도 협상 조기타결에 대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됨

□ 연내 협상타결에 대해 부정적 전망도 제기

○ 상반기 마지막 협상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예측되면서 연내 협상타결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타나고 있음.
- 협상 직후 참여국 정부의 미온적 입장발표를 두고 이번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 특히 시장개방 수준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유화 방식에

서마저 각 국의 입장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지며 연내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졌다는 입장이 늘어남

- 그동안 RCEP 협상은 경제장관 회의를 포함하여 반기에 약 2회 정도 개최된 점에 비추어 현재까지 협상 진전 정도를 감안할 때 하반기 내 모든 작업반에서 합의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전략적 협상 접근법 필요

○ 타결이 지연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할 전망

- 참여국 모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기본입장을 천명한 바 있으며, 특히 동 협정이 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TPP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미 TPP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다자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많아 각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방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협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협상 속행보다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그룹화 하여 쟁점사안에 공동 대응하는 등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함

- 한국과 일본은 농산품 보호와 지재권 보호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호주는 지재권 보호 강화에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나 의약품의 지재권 보호 수준에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는 등 분야에 따라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다름
- 국별 입장 차이에 따라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와 함께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 요구됨

작성자

◈ 통상전략팀 김인태 사원

Global Market Report 16-038

RCEP 제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

발 행 인	김재홍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16년 6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SBN : 978-11-87219-79-8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RCEP 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